

24년 7월 목회일정

7일(주일)	임시제직회, 당회
14일(주일)	특강 :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
21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8일(주일)	초빙설교(박하림강도사/칼빈대학원-교의학)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11일(목)	총회 통일대비위원예비모임(제2영도교회당)
18일(목)	총회 공천위원회(성동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 문화주일특강** /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주제 :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강사 : 최성림 목사)
-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 분기특별헌금** / 총 3,930,000원
- 임시제직회** /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2층 교육관 1호)
연합당회(장로-집사)와 재정부(배성은-구성본)가 모입니다.
- 당회** / 임시제직회 후에 있습니다.(2층 교육관 1호)
- 목사동정** / 11일(목) 11시 총회 통일대비위원 예비모임(제2영도교회당)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7월 예배봉사자 /교회소식-김영민 봉헌-구성본 안내-김학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금요독서회	20:00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7월	8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김명순
안 내	김학희	최진언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7.07.(제28-27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1:1-2(교송)

인도자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시편106편(4-5)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다함께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가250장(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롬8:31-39, 욥7:11-21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34편(6-9)

설교 ↓ 설교자

의인이 당하는 곤난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7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73:28(교송)	
인도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회 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가 3장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22장(3-5)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눅 6:43-45	
교 리 문 답 교 독 ↓		하이델베르그62-64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9편	
설 교 ↓		설교자	
이신청의에 대한 오해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8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목사		
* 감해(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이야기성경		
구 신	49. 삼손과 들릴라	
	50. 롯	
	32. 유다의 배반	
주간성경읽기		
주일	민18-20	눅6:20-38
월	민21-22	눅6:39-49
화	민23-25	눅7:1-10
수	민26-28	눅7:11-23
목	민29-31	눅7:24-35
금	민32-34	눅7:36-50
토	민35-36	눅8:1-21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의인이 당하는 고난)

-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주께 매어주시길
- 일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지존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간구하는 생활되게
-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파서교회(강인종목사)

-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
-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
-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성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연약을 전수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섬기게
-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진리를 좇는 선한 본으로 피차 복종하게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5)

전에 쓴 글

그러나 이 세 직분을 자신들이 다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들은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사장직을 감당할(교회를 돌아 보며 연약한 자들을 돌볼 직무를 가진) 집사의 직분(행 6:1-7)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운 후 피치 못하여 교회를 떠 날 때 그 세워진 교회에 장로를 택하여 세워 교회를 맡겼습니다(행 14:23)

그리고 천하만방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당시 천하각국은 행 2:5ff에 나오니 다) 사도들이 각 교회마다 말씀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증인들 가운데 충성된 자들을 세워 말씀사역을 감당하게 하였고(딤후 4:13-16/딤후 2:2) 또 장로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워 가르 치게 하였습니다(딤후전17-19)

이제 교회의 터가 되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는 신약교회에 사도직을 계승한 말씀사역자(목사)들과 장로, 그리고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예수님의 3중직)의 직 무를 감당하도록 의탁하셨습니다.

[모든 성도 역시 신학자여야 한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오직 직분자들에게 있다고 생 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가 다 이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부음 을 받은 주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2:1-14:40)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위에 당신의 은사(엡4:7)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엡 4:21-2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소유합니다(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엡 6:10-20말씀을 보면 쉽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의 띠(선지자직), 의 의 흉배(왕직), 평안의 복음의 신(선지자직), 믿음의 방패(제사장직), 구원의 투구(왕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왕직/ 선지자직), 기도와 간구(제사 장직-기도는 아름다운 향기, 곧 제사입니다.(계 8:3-5)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 사장이라](벧전 2:9)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왕)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계 1:6, 5:10)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만인 제사장]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 운동과는 전혀 그 의미 가 다르다는 것입니다.(계속)

을 정해놓고서는 분별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덧붙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성경에서의 상급?

성경에서는 우리의 선행에 따른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약속하는데,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시 18:20; 19:11, 마 6:4, 히 11:26, 계 22:12).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은혜”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는 수고한 만큼 받는 샅입니다. 샅은 일꾼이나 받는 것이지 자녀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은혜로 주시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기업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만 이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복이 있습니다.

3. 선행에 대한 무관심?

이신칭의를 가르치다보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굳이 선행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강조하지만 도덕적인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눅 6:43-44). 과실나무는 다른 종류의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신자에게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만이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접붙임 받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열매는 공로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선행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들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문들입니다. 성경과 신앙고백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7월 7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516장
성경봉독	욥 7:11-21, 롬8:31-39
설 교	의인이 당하는 고난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욥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1. “욥의 고난에 대한 두 입장”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만 욥의 아내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욥의 아내**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9) 그녀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욥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 곧 욥의 고난의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그러므로 욥, 너는 죄인이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서로 달랐지만 그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욥을 압박했습니다,

병문안을 할 때나 심방을 할 때에 매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성도에 대하여 돌이킬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고난 앞에서 선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정하며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나 욥의 아내의 논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라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2. “욥이 생각한 고난의 이유”

욥이 말하는 고난의 이유는 **야웨께서 지나치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7:12,19-20)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다나 바다괴물로 보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야웨께서 마치 자신을 이방인처럼 대우하신다는 말입니다. 곧 욥이 마치 언약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나 괴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가?’라는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자신을 두려워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입니다.(15) 물론 옴의 이 말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소망도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말이지 죽음이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16) 이 피맺힌 절규가운데서도 옴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아웨의 손에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직 위협당하고 있지 않음은 아웨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가결된 결정은 옴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웨께서 사단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도 놓아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옴의 절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한 인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웨께서 그의 생애를 주목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향한 옴의 원망”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17). 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20)라는 옴의 항변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께서 자신처럼 비천한 존재를 마음에 두고 아직 생명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하나님께 수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옴을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계셨습니다”(18) 잠시도 옴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것이 지금 아웨 하나님을 향한 옴의 생각입니다.

옴의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 어떤 뚜렷한 잘못이나 반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도리를 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로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라는 말은, 의인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질문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옴의 고난을 조장하신 분이십니다. 옴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과 결탁하여 옴을 사단에게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할지라도 옴을 고난에 내어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공평성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21) 여기에 **옴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항변의 저변에는 **오직 아웨 만이 자신의 정황을 아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옴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그 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죽더라도 죄의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롬8:31-39)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7월7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88장
성경봉독	눅 6:43-45
설 교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	
기 도	부모대독
주기도문	부 모 다 같이

주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신칭의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62-64문에 이르는 질문들이 이에 대한 도전이며 의문입니다. 성경과 신앙고백은 이러한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신칭의가 옳다고 가르칩니다.

1. 의의 일부분?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사 64:6).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을 전부, 그것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갈 3:10).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의 그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갈 2:16). 이들은 믿음에다 사람의 행위를 덧붙여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